

봉 헌

832. 그대는 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사명과 책임, 그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형제들의 목마름을 풀어주는 시냇물. 그들이 쉬어가는 든든한 바위,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력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자신을 바라보며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이가 마음대로 그대를 다룰 수 있고, 그들을 위해 살아야 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대의 때가 되었으니 이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사랑의 무게 아래 죽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구미나 본성이 요구하는 것에 끌려다니며 살 수 없습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하느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도약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833. 주님께서 영원으로부터 부르셨으니 그대의 응답 또한 영원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시선을 주셨으니, 그분 아닌 그 누구에게도 그대의 눈길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834. 주님께서 그대에게 인장을 새겨주셨으니 감사 드리십시오. 그분 가까이 그대를 불러주심에 감사 드리십시오.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대를 사랑하는 자매들과 함께 살게 해주심에 감사 드리십시오. 그대가 넘치는 열정의 샘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분께 감사 드

리십시오.

그대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음에 감사 드리고 그분 사랑의 순결한 불길 속에 살게 해주심에 감사 드리십시오. 그대의 삶으로 감사 드리십시오.

835.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재빠르고 충만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기쁨과 열정이 있습니다. 영혼에는 깃발을, 발에는 날개를 다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알 때 참으로 든든합니다.

836. 성소는 관대함의 신비입니다. 결코 인간적인 셈을 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작은 돛단배, 하느님은 무한한 대양... 그분의 바다에 두려움 없이 그대의 가난한 돛단배를 띄우십시오.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837. 그대는 하느님을 만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맡겨드린다면 이 만남들 안에서 사랑의 새로운 비밀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대를 더욱 착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평화의 천사로 만드실 것입니다.

838. 하느님께서 영원한 혼인 잔치에로 그대를 부르십니다. 헤아릴 길 없는 당신 사랑의 신비 안에 그대를 잠그려 하십니다.

하느님의 신비 안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분의 용광로 안으로 그대를 던져 넣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로 뛰어들면 그대는 한 점

티끌, 하나님의 불길에 타버린 불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모든 것에 도전하십시오. 모험은 신비롭고 싸움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 혼자서 하시듯 해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839. 주님의 소리가 나의 귓전을 울리며 당신 친밀함 속으로 부르십니다. 그 소리를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제 영혼 안에 담아 주소서. 당신 목소리의 메아리가 되고 싶습니다.

840. 주님께서 그대를 아십니다. 그대의 이름으로 그대를 아십니다. 그대를 사랑하시기에 기름진 주님의 산으로 그대를 데려가십니다. 맑고도 깨끗한 산, 무한 앞에 펼쳐진 산, 빛과 생명과 기름진 풀과 사랑으로 가득한 그 산에서 뛰놀게 하십니다.

그대의 이름으로 그대를 부르셨고, 그 새 이름으로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841. 사랑의 신비가 신비로운 시냇물처럼 그대 위에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부르시고 입장을 새기시고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충실 하십시오.

842. 성소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어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성소를 지니고 있다 합니다. 또 모든 종류의 성소를 수용하고

모든 방면에 열려 있는 신축성 있는 영혼을 만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모든 종류의 성소와 생활 양식 그리고 모든 이들 앞에 열린 영혼이 되는 것을 꿈꾸어 봅니다.

843. 주님께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그분께 문을 열어 드려야 합니다. 그분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영혼이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아! 그러면 그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주님께서 쉬어가시는 베타니아가 되지 못하고 인적 없는 쓸쓸한 집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844. 주님께서 그대를 당신을 위한 작은 집, 따스한 휴식처가 되게 하고, 당신의 벗이요, 기쁨으로 삼고 가까이 두시고자 그대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대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길은 태양과 빛,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길, 그러나 가파른 산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길이 힘들어도 올라가야 합니다. 낙관주의를 갖고 올라 가야 합니다.

845. 주님께서 슬한 위험으로부터 그대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대는 그렇게 악인은 아니었더라도 미지근하고, 특별한 비전이나 더 이상의 야심도 없이 사는 지극히 보잘것없고 평범한 영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대를 세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부르심에 지극한 충실과 섬세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일입니다.

846. 아무리 과거가 비참했을 지라도 그 회상 속에 묻혀 살아서는 안됩니다. 지난 날은 더 이상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대가 직면해야 하는 현실은 구세주를 만나고 그대 앞에 펼쳐진 놀라운 모험에 도전하며 사랑으로 비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큰 죄인들이었을 때에도 전혀 상관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도 이에 상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847.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논리적이고 인간답고 신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앞만 바라보고 결코 뒤를 보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수덕생활의 기초입니다.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대리자를 믿으십시오,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848. 자, 서두르십시오. 교회는 항상 앞만 보며 가는 영혼들이 필요합니다.

849. 그대는 하느님이 이루어 내신 기적입니다. 그분께서 그대에게 인장을 새기셨습니다. 영원으로부터 그대를 바라보시고 그분께서 먼저 그대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손으로 그대의 문을 두드리셨는지 아십니까? 마리아의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제 그대가 응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관대하게 항구한 "예"로 응답하십시오.

850.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인장을 새기셨습니다. 그 신비로운 인장을 어떻게 간수하였는지요? 혹시 변형시키진 않았는지요? 아니면 제대로 보존했는지요? 만일 일그러졌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무는 이 해를 태워 버리고 동정녀 어머니의 품에서 새로 태어나십시오.

851. 지금은 지난 일을 셈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조건 없이 도약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 것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말입니다.

852. 그대의 생을 거십시오. 그대의 전 생애를 그분의 발치에 산산조각으로 깨트려 놓으십시오. 모든 이를 위한, 교회를 위한 생명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대를 사랑하시는지 그대가 알고 있다면...! 그분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증거를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853. 그대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도 생소하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 그대는 결코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벌써부터 그대를 눈여겨 보고 계셨고 교회와 인류에게 참으로 어려운 이 시간, 이

교차로에서 그대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대는 부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854.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대를 신뢰하셨으면 폭풍우, 비바람 속을 함께 가자고 초대하셨겠습니까? 성장에 따르는 격렬한 위기를 헤치며 그분과 함께 사랑의 축제를 나아가자고 그대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대의 에너지를 투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그대의 지성과 사랑과 생명을 다해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모험에 투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대의 영혼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855. 제대가 축성되는 것을 보고, 한 영혼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한 생명이 봉헌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생명 없는 피조물까지도 이렇듯이 돌보시고 기름 바르시는데, 살아있는 조물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56. 사물들 너머... 그 훨씬 더 너머에, 하나님의 신비가 존재합니다. 사랑에 빠진 영혼의 굳건한 기상으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 안에 남아있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고통에 효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상처 받은 그대 마음, 절정에 다다른 그대 고통의 번제를 하나님의 용광로 속

으로 던져 버리십시오. 하느님 안에서 완성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857. 예수님! 저로 하여금 당신 포도밭에서 머물어지고, 당신 술
틀 안에 으깨어져, 당신의 희생제사를 위한 포도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주님! 저로 하여금 칠흑같이 어두운 신앙의 체험을
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또 저의 일상 생활 안에 당신을 육화
시킬 수 있도록 저에게 순명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저는 당신의
포도... 마시소서, 저의 포도송이를 꺾으시어 당신 제대상의 포도주
로 만들어주소서.

그 성혈로 저를 취하게 해 주소서. 저를 미치게 하시어 당신 아닌
인간적인 모든 감각들을 잃어 버리게 하소서.

858. 성대서원...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 이제 그분의 얼굴을 맞
대고 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분께서 신비로운 인장을 새겨주셨
으니, 아무도 그대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859. 너무 오랫동안 하느님께서 그대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대를 사랑하셨고, 희생으로 그대를 준비시키시고 죽음
저 너머에까지 지속될 성대 서원으로 그대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의 응답만이 남았습니다. 충실의 응답, 주님 뜰 안에
항구한 "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대의'예'에 충실 하십시오.

860. 그대는 서원으로 결정적인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이는 허공을 뛰어 내리는 도약이며, 신앙의 도약이요, 그대의 위대한 모험을 위해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신비로운 도약입니다.

861. 봉헌 생활을 살아가는 영혼의 발걸음은 굳세고 결정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개인의 성덕에서 자라나면서 동시에 교회 전체에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방법으로 그 성덕의 빛과 열기를 투사하는 것입니다.

862. 삼대 서원, 해방을 가져다 주는 사슬... 모든 것이 단순합니다. 단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성껏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863. 삼대 서원... 완덕의 길, 이 얼마나 훌륭한 길입니까! 이는 사랑의 길이요 혼인의 길입니다! 길이요 동시에 목적지입니다. 죽기까지... 죽기까지!

864. 순명은 자유이고 정결은 행복이며 가난은 소유입니다. 죽음을 저 너머까지 이어지는... 충실 하십시오. 항상 충실 하십시오. 그대의 걸음걸이마다 주님께서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865. 서원은 그대 생명과 사랑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그대는 일치의 모험에 뛰어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는 세상 모든 문제를 끌어안는 열린 마음이요, 시선이요, 삶입니다.

모든 형제가 그대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의 것이고 또 그대를 위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866. 그대의 순명은 다스림이요, 가난은 소유, 정결은 닳지도 늙지도 않는 영원한 청춘입니다.

867. 성대 서원은 그대로 하여금 더욱 모든 이를 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 사랑의 새로운 시간, 오늘 시작되어 결코 끝나지 않을 이 시간을 용감히 사십시오. 변함 없는 이 오늘을 사십시오.

868. 그분께서 묶어 놓으신 것을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죽음만이 끊고 다시 묶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우리 서원이 진실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869. 그대의 삶은 높은 곳을 향해 날아야 합니다. 이는 순명의 날음, 정결과 자유의 날음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대가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자리에서 그대를 만나 주십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분께서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고 바라십시오.

870. 이제 서원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원은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우정의 비밀이 새겨진 사랑의 약속입니다.

871. 서원은 구속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날개입니다. 이 날개로 하느님까지 날아오르십시오.

872. 상징들은 신비로운 실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징 자체가 아니라 그 상징이 표시하는 실재입니다. 성대 서원으로 서약한 그대 미사의 깊은 신비를 살아가십시오. 하얀 백지는 오직 한 가지, 하느님의 낙인만을 받아들입니다. 깨끗한 백지가 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 백지에 당신의 인장을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바로 천국입니다.

873. 조금만 있으면 그대와 사랑이신 하느님 사이에 죽기까지 약속을 맺게 됩니다. 시간을 두고 미리 연습하십시오. 참으로 엄숙한 그 무엇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대하고 용감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사랑 하십시오.

874. 축성될 수 없는 기질이나 성격이란 없습니다. 그대의 성격도 하나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성격에 맞추시는 기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대에게 다가가는 모든 이가 그대가 아닌 그분을 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그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75. 그대의 서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에 몸 바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사랑에 빠지신 하나님의 신비에 되 갇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대 서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는 그대의 헌신과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그대 존재 전부를 걸어 하나님과 약속 하는 것입니다. 그대 서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신비로운 혼인입니다. 그리로 들어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876. 하나님의 소리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명입니다. 다른 소리들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순명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어둠 속에 이 얼마나 확실하고 위대한 사랑의 신비입니까!

하느님은 빛이십니다. 존재의 심부까지 꿰뚫는 신비로운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밝혀주는 햇불은 순명입니다.

순명의 신비 안에 그대의 사명, 그리고 구원과 사랑의 신비가 담

겨 있습니다.

하느님의 빛... 사랑에의 순명, 이것이 그대가 절규하는 것 입니다.

877. 순명은 인간적인 것에서 신적인 것에서의 도약하는 것입니다, 순명을 통해 하잘것없는 것들이 영원한 하느님의 뜻으로 변화됩니다.

878. 순명은 영혼이 주인이신 하느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영광의 찬가 입니다. 순명은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하느님의 영원한 뜻의 거룩한 신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879. 순명은 우리 삶에 작용하여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순명은 그대로 하여금 하느님처럼 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과 그대를 하나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880. 순명은 완전한 번제입니다. 영원하신 뜻의 심연에 잠겨들 때 만사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그대의 메시지, 그대의 신비, 그대 사랑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의 뜻에 그대의 뜻을 합하십시오.

881.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명하셨도다.” 우리 그리스도를 더욱 철저히 닮기 위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데까지, 그분께서 매달리셨던 그 나무에 우리의 삶을 매달기까지 순명해야 합니다.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부드럽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882. 진실하고 조건 없는 마음으로 교회에 순종하고 그 계명과 가르침과 권고에 순종하십시오. 참된 순명의 정신으로 하느님 호의의 뜻을 불평이나 저항 없이 받아들이며 하느님의 계획에 순명하십시오.

883.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명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순명...! 순명은 일상생활의 작은 행위들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884. 순명이 그대에게 명하는 것을 언제나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십시오. 그 순명 뒤에는 언제나, 항상 의심할 여지 없이 하느님의 거룩한 손이 숨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손이 그대를 비틀어 짜시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885. 공동생활에 철저하게 순명하십시오. 그리고 수도원의 생활 여정은 순명의 행위들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순명의 상태 안에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886.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순명의 신비에 완전히 승복한 영혼을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얻어내는 불가사의한 힘이며, 실제로 모든 원수들의 세력을 무찔러 버립니다. 원수들의 총알을 꺾어버립니다.

887. 그대의 정결이 그대의 눈을 밝혀 주고, 그대 시선에 불을, 그대 언행에 빛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대 의지에 강인함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죽고, 정상을 향해 투신할 줄 아는 용감한 거인이 되게 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888. 정결은 영원의 신비 안에 뿌리를 박고 자라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싹터 나와 하느님께 의지하며 또 하느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강하고 위대합니다. 영원이 그의 휴식처이며 영원에서 그의 완전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지상의 화초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화초입니다.

889. 정결의 위대한 신비는 삼위일체의 깊은 신비 안에서 밝혀 집니다. 그 신적 불 속에서 영혼의 눈이 정화되고 찌꺼기는 태워 집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느님의 무한히 풍요로운 정결 안에서 하느님을 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지극히 단순하고 신비롭고 범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늘진 구석도 없고 외부의 작용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정결이며 무한한 순결입니다. 영혼은 거기 삼위일체 안에서 지극히 순결한 성삼의 물소리를 들으며 정결의 눈송이로 피어납니다.

890. 정결의 지역에 자리 잡는다는 것은 지상에서 천국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막을 기쁨과 평화의 오아시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891. 존재를 다하여 정결의 신비 안에 깊이 파고 드는 것은 성령의 활동에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그 정결해진 삶을 한 줄기 빛으로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하여 영혼이 자신의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어느 모로 하느님까지도 꿰뚫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892. 정결의 신비가 그대의 삶에 무게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대를 위해, 인류를 위해 이 신비를 살아가십시오. 그대 인생의 발걸음은 교회적이고도 세계적인 차원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형제들이 이 정결의 신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시오.

893. 정결의 새하얀 이름을 더욱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불타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불꽃보다 더 정결한

것은 없습니다.

894. 정결의 잔에서 육화되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신비가 움터 나왔습니다. 저의 잔에서 예수님께서 움터 나오시도록 저의 정결을 충만하게 살고 싶습니다.

895. 정결은 아낌없이, 눈가림 없이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신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상에서 하늘을 향해 한 순간도 방향을 잃지 않고 용감하게 뻗어가는 직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그대를 바치십시오. 그대의 허무를 하느님께 봉헌 하십시오. 그분께서 그대를 만져주시면... 아! 그 것은 하느님의 만지심이요, 진흙 속에 한 줄기 빛, 가난한 피조물 안에 피어난 사랑의 신비가 될 것입니다.

896. 생각의 정결, 마음의 정결... 사랑과 빛이 되라고 존재 전부를 요구하는 은밀한 정결!

897. 정결은 영혼의 전부를 차지하고 흡수하고 정화하고 신화합니다. 그대가 받은 정결의 충만한 성소에 지극히 충실 하십시오. 그대의 전 존재로 충만한 정결을 사십시오.

898. 정결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 정결의 풍요함을 결코 낭비하는 일 없이 고스란히 간직합니다. 언제나 흠 없이 깨끗하고, 새롭고,

풍요로우며, 순결한 빛으로 가득 찬 정결을 유지합니다. 정결은 그 은빛 물결 속에 잠길 것을 각오한 영혼들을 위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899. 동정 성모께서 사셨던 것과 같은 정결을 우리도 살아갑니다. 똑같은 규정, 똑같은 의무와 권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900. 정결은 거대한 투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느님께서 정결한 영혼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 가시고 그를 차지하시고 그의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차지하시어 영혼의 삶을 당신의 신적인 삶 에로 그대로 옮겨 놓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것으로 차지하시어 풍요로워지고 신화되고 재충전된 그 정결한 영혼을, 당신 친히 영혼들에게 파견 하십니다. 이는 영혼이 자유로운 의지로 순결하게 자신을 바쳐 드렸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동양을 받아 들이시는 하느님의 복된 신비여! 그리고 빛으로, 불꽃으로 변해버린, 아니 하느님 자신이 되어 버린 그 동양을 나누어주시는 일은 그분께서 맡아 하십니다.

901. 정결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도, 약화시키는 것도, 결함이 있음을 의미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결은 온전함이며 충만함 이요 하느님의 신비로부터 충전되어 매일매일 축적되는 힘입니다. 정결하게 되면 될수록 이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902. 사랑으로 가득 찬 어느 오후였습니다. 순결과 사랑과 정결로 단장한 그 신비로운 저녁에...

새로운 말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이에 말씀께서 응답하시어 여중 안에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씀과 여중께서 영원토록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903. 이 지상에서 형제들을 향한 사랑은 정결한 삶을 재촉합니다. 이는 인격의 통합을 위해, 충만한 "나"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하느님이신 당신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상을 사는 동안 사랑의 도량을 넓혀가야 합니다. 형제애의 힘으로 충만한 정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904. 가난에는 깊고도 심오한 신학적 사색이 담겨있습니다. 가난에 따르는 포기들의 이면에는 풍요롭고도 굳건한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흔히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얘기할 때 포기, 고통 혹은 비움 등과 같은 부적절한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살펴 들어가면 가난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가난 앞에 모든 것이 도망쳐 버립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모든 공간을 차지하시고 사랑이 모든 것을 점령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905. 가난은 평화, 자유, 평온함, 신적인 고요함, 무한한 보화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존재의 심연을 마지막 구석까지 채우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존재 할 수 없는 허무의 심연을 채우고 계신 것입니다.

가난은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괴롭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가난은 우리를 신화시키고.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고, 하느님의 신비로 만들어 줍니다.

906. 그대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선포하는 증인이요, 그분의 사랑과 선을 반영하는 눈길이며. 사랑의 외침입니다.

그대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대의 뼈저린 가난으로 하느님께서 내 바위, 나의 힘,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임을 자신 있게 노래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907. 존재의 심부로 부터 비롯되는 철저한 가난을 꿈꾸십시오. 모든 것을 채우는 빈틈 없는 가난! 가장 영적인 것에서부터 감지되지 않는 미소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가난을 꿈꾸십시오.

908. 가난은 철저함, 자유, 완전한 헌신. 끝없는 야망입니다. 하

느님을 만지는 것이고 그 침묵 속의 만짐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게
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909. 가난! 자유!

수도자들의 방이 비어있으면 비어있을수록,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들의 짐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영혼이 물질에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들에 마음이 끌려서
도 안되고 마음을 차지해서도 안됩니다.

910. 자, 빨리 서두르십시오. 그분을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
습니다. 그때에는 참된 가난이 될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 남게 될
것입니다.

911. 그대는 연약합니까? 가난합니까?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보다 더한 기쁨이 또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대가 할 일은 그대의 가난을 점점 더 느끼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나의 가난에 결합하고자 한다면 나는 그대를 나의 가
난과 고통의 동반자로 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의 가난함으
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날아갑시다. 우리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
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복되어라,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912. 가난은 해방입니다. 우리의 것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것만이 남아야 합니다. 자신으로부터 해방 되십시오. 그리고 그

리스도께서 그대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대에게 가장 위험한 재산은 그대 자신입니다.